

##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

17세기\_이단하(李端夏)·황혁(黃赫)·장유(張維)·양경우(梁慶遇) 지음\_45.0×120.0cm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은 양성당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읊은 것으로 이단하(李端夏, 1625-1689), 황혁(黃赫, 1551-1612), 장유(張維, 1587-1638) 등 저명인사들의 시문(詩文)이 기록되어 있다.

### 양성당십詠

不網前溪水 時時青竹長 自然功業在 何必待文王 前溪釣魚  
遙京清且清 不忘滄浪濁 欲濯纓無塵 當流宜赤足 後澗濯足  
濁酒三杯後 鷄籠侶祝融 尋眞聊託興 時過此山中 鷄籠訪隱  
應爲款終花 殊非參佛祖 浮生半日間 句引烟霧瘴 大芑尋僧  
一樹消殘雪 精神最月明 高人得意處 疎令是殺兄 梅梢明月  
靜處秋霜停 搖時宿露齋 一塢藏清風 去來由竹第 竹塢清風  
雲影須更黑 掬池一片天 無端滿葉響 驚破午聯眼 蓮池驟雨  
陶潛未遶來 春色自年年 汀晚十絲亂 更添薄暮煙 柳汀炊煙  
學規依白鹿 繩墨會青衿 燕子遲遲日 誦聲出霧林 巖舍談經  
日暖風殘時 全村亭上聚 從容不主皮 人道其爭古 林亭觀德  
松磯

藥籠新方肘後奇 移來小圃雨如期 幽人獨自看生意 誰向南山種豆箕 藥圃春雨  
林外晴川走白沙 菰蒲秋雨長魚蝦 投竿亦是忘機處 不比襄陽縮項槎 沙渚秋漁  
叢生桂樹澗之陰 聞說幽居萬壑深 試草小山招隱操 更携筇杖遠相尋 鷄籠訪隱  
東林蘭若翠微重 步履隨緣訪遠公 不用世間閒問訊 藥爐經卷坐談空 大芑尋僧

臘盡江南麗景遲 生香不斷月橫枝 三更笛裏無情落 萬里清光好對誰 梅梢皓月  
萬竿榕竹碧相連 欵欵頻聞爽籟傳 更有二郎如玉樹 風流不數仲容賢 竹林清風  
樹樹花紅錦不如 依然籬落似秦餘 尋源尚有漁郎至 爲報山林好著書 一區桃源  
池塘一雨曉來晴 白白紅紅上下明 霽月滿空風乍起 碧間珠露瀉無聲 兩池荷花  
幾軸圖書一畝宮 啞吟音微啓昏蒙 千言萬語都心訣 體認分明不落空 巽舍談經  
樞亞連雲一望同 野人生理宛亭中 豚蹄酒榼無他語 只願西成有始終 野亭觀稼  
黃嶽

一雨乘春土脈融 小畦條甲翠成叢 閑看不比庭前草 康濟他時有妙功 藥圃春雨  
前溪秋雨玉鱗肥 密樹陰中坐石磯 莫把堯夫觀物興 擬他西塞綠蓑衣 沙渚秋漁  
青山深處白雲迷 中有高人物外棲 欲討琴書來往熟 夕陽驢背過寒溪 鷄籠訪隱  
石林精舍幾牛鳴 暇日携筇叩化城 莫道先生愛禪寂 碧雲佳句自關情 大芻尋僧  
江月初放臘前花 分外天公借月華 摠入清襟添灑氣 一生思慮自無邪 梅梢皓月  
湖石人家少竹林 移來何地忽成陰 橫渠可但清煩暑 歲暮風霜共此心 竹林清風  
花開處處弦東西 地僻都無樹下蹊 莫把漁人透消息 塵蹤欲到自應迷 一區桃源  
翠蓋紅粧淨不妖 雙塘水白暖香飄 瀟溪宅裏如無此 霽月光風便寂寥 兩池荷花  
講肆雍容聚席珍 青衿濟濟學規新 懸知衆說翻瀾處 別有悠然舍瑟人 巽舍談經  
田居事事且隨宜 植杖林亭看餉畱 從此免教沮溺笑 先生元不學樊遲 林亭觀稼

張維

默默垂綸坐釣磯 溪流清淺得魚稀 此間幽趣無人識 乘輿獨來還獨歸 前溪釣魚  
幽澗玲瓏走 小塘潤邊蒼石坐如床 加來素足無塵垢 濯向清流也來坊 後澗濯足  
聞說山翁不出山 棘籬第屋亂雲間 一節巖逕遙相訪 盡日耽閒却忘還 鷄籠訪隱  
杳杳雲端出 聲聲薜蘿深處路 迴紫山僧頂禮金僊 罷覓客間門一笑迎 大芻尋僧  
霖政閒時月滿規 清光冷艷兩相宜 耽看脉脉難言處 祇在殘宵獨立時 梅梢明月  
繞階梧竹影 蒼蒼鮮庠兒 豫百尺長一陳咸 風架夕起玉簪敲 月侶冰涼 竹塢清風  
風驅雨脚散如麻 顛倒池塘萬柄荷 碎盡珠璣無處所 借涼多 蓮池驟雨  
孤邦炊爨烟半雜 斜暉泊柳邊 剛被晚風吹漸減 前山暝已自蒼然 柳汀炊煙  
閒居樂在教英才 隔岸林講室 閒鷄大罕音 邦古靜讀書聲 逐晚風來 巽舍談經  
林阜展席午陰清 風定帳安鼓屢鳴 滿酌罰觥人共醉 莫言君子本無爭 林亭觀稼  
梁慶遇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

앞쪽 계곡에서의 물고기 잡이[前溪釣魚]

앞쪽 계곡물에 그물질을 하지 않으니

때때로 푸른 대나무가 자라네

자연에 공업이 있는데

하필 문왕을 기다리겠는가

뒤쪽 산골짜기에서 밭씻기[後澗濯足]

아름다운 계곡이 맑고 또 맑으니

창랑처럼 탁하지를 않아

흠로 갓끈을 씻으려하나 티끌이 없으니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네

계룡산의 은자를 방문함[鷄籠訪隱]

탁주를 석잔이나 마신 후이니

계룡이 축융(祝融)과 비슷하네

진경을 찾아가 그런대로 흥취 의지하려고

때때로 이 산중을 지나갈 뿐이네

대둔산의 스님을 찾아감[大菴尋僧]

응당 겨울 꽃을 사랑하기 위함ियो

특히 불조에 참례함이 아니네

덧없는 인생의 한나절이 한가하니

문장에 연하(煙霞)가 만연한 것이 고질이라네

매화나무 가지 끝에 걸린 밝은 달[梅梢明月]

한 나무에 남은 눈이 사그라지니

정신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밝은 달빛이라네

고인(高人)이 뜻을 이루어 자랑하는 곳이니

쏟아지고 한가한 것은 매화라네

대나무 숲의 맑은 바람[竹塢清風]  
고요하면 가을의 찬서리가 머무르고  
일렁이면 맑힌 이슬이 날려가네  
한 모퉁이에 맑은 바람이 감추고 있으니  
오고가며 대나무 집을 사용하네

연꽃핀 연못의 소나기[蓮池驟雨]  
구름 그림자가 더욱 검게 짙어지니  
한 조각의 하늘이 연못을 가리네  
무단히 연잎에 소나기 우수수 떨어지니  
놀라서 낮잠을 깨었네

버드나무 그늘진 물가의 밥짓는 연기[柳汀炊煙]  
도연명이 벼슬이 바뀌어 돌아오지 않았으나  
봄기운은 해마다 저절로 오네  
해질녘에 물가에는 버들가지 무수히 늘어져 어지러운데  
거기에 이른 저녁의 연기가 서리네

학당의 경서강론[黉舍談經]  
규칙은 백록동 서원 원규를 따르고  
먹줄은 유생들을 따르네  
제비에게 날은 더디고 더딘데  
글 읽는 소리가 안개 낀 수를 밖까지 들리네

숲속 정자에서 활쏘기[林亭觀德]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잔잔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활쏘는 정자로 모이네  
활을 쓰는데 과녁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인도(人道)는 옛 것만을 가지고 겨루는 것을  
송간(松巖) 이단하(李端夏)

약초밭에 내리는 봄비[藥圃春雨]  
약재에 새로운 휴대용 구급약 있으나  
작은 약초밭을 다른 곳으로 옮겨 비를 기다리네  
은자가 홀로 스스로 생업으로 돌보니  
누가 남산에 콩을 심고 키질을 하려는가

모래톱 물가에서 가을 물고기잡이[沙渚秋漁]  
숲 밖 맑은 개천 백사장이 널려있어  
물풀 우거진 물가 가을비에 고기와 새우가 자라네  
낚시대를 드리운 채 시기와 장소를 잊었으니  
양양에서 축항편고기를 잡는것에 비할 바가 없네

계룡산의 은자를 방문함[鷲龍訪隱]  
잡가지 어우러진 계수나무 계곡 음지에서  
만첩산중에 사는 은자의 말을 귀담아 듣네  
화남소산(淮南小山)의 은자를 위한 곡조처럼 시험삼아 지어  
다시 지팡이를 짚고서 멀리서 찾아오네

대둔산의 승려를 찾아감[大菴尋僧]  
동림사찰에 청록 더해갈 때 나막신 끌고  
인연따라 혜원공(惠遠公)을 찾아 나서네  
세간에 험하게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것은 아무 효용없으니  
약달이는 화로와 경전으로 하는 좌담은 공허할 뿐이네

매화나무 가지 끝에 걸린 하얀 달[梅梢皓月]  
설달이 다되어도 강남의 봄 오는 것이 더디니  
끊임없이 향기를 내는 것은 달을 가로지르는 매화나무 가지라네  
삼경의 피리소리 무정하게 멀어지니  
만리의 밝은 빛은 누구를 맞이하여 좋아할거나

대나무 숲의 맑은 바람[竹林淸風]  
만 그루 높은 대숲 푸른 빛이 연이어져 있으니  
바스락소리 자주 들려 상쾌함이 울려 전해지네  
더욱이 아름다운 나무처럼 두 사람이 있으니  
풍류가 많은 완함(阮咸)처럼 어질이네

한 구역 무릉도원[一區桃源]  
백백한 수림과 붉은 꽃들은 비단보다 아름다우니  
예전같은 초목 올라리는 진나라 유민같구나  
무릉도원 끝을 찾아 도착하는 어부가 있다면  
산 숲에서 책을 짓기에 좋겠다고 말하겠네

쌍둥이 연못 위의 연꽃[兩池荷花]  
연못에 내리던 비가 새벽부터 맑아지고  
희끗희끗 불긋불긋 위아래로 밝구나  
맑게 갠 달빛 하늘에 가득한데  
갑자기 바람 일어나고 하늘에서 구슬같은 이슬이 쏟아져도 소리가 없네

학당의 경서 강론[黉舍講經]  
몇개 두루마리의 도서가 일묘의 좁은 집에 있는데  
글 읽는 소리가 우매함을 능히 깨우쳐 주겠네  
천만 가지 언어가 모두 마음의 비결이니  
분명하게 마음 깊이 인식하여 헛됨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네

숲 속 정자에서의 농사일 구경[野亭觀稼]  
무성한 비가 구름처럼 이어져 한눈에 들어오고  
시골사람 생활이 정자에서도 환히 보이네  
돼지 족(疋)과 술 한 통 마시면서 다른 말 필요없이  
다만 가을 수확에 풍년들기를 바랄 뿐이네

황혁(黃赫)

약초밭에 내리는 봄비[蔓圃春雨]  
봄비 한번 내리자 땅 기운 응응(融融)  
조출한 밭 겹질 깨고 무더기로 파릇파릇  
얼른 봐도 뜰에 난 풀과 같지 않나니  
훗날 병자(病者) 구제하는 기막힌 공 이루어라

모래톱 가에 노니는 가을 물고기[沙渚秋魚]  
얕 개울 가을비에 옥 비늘 살진 고기  
백백한 나무 그늘 바위에 앉아 계시누나  
요부처럼 관음하는 선생의 이 흥취를  
서새의 초록 도롱이에 견주질랑 마오시라

계룡산의 은자를 방문람[鷄籠訪隱]  
청산 깊은 곳 흰 구름만 오락가락  
그 속에 고명한 분 세상 잊고 사시나니  
학문 서로 담론하러 왔다 갔다 익숙한 길  
석양에 나귀 타고 찬 개울 건너가시누나

대둔산의 승려를 찾아감[大屯尋僧]  
석림의 정사 소 울음소리 들릴 거리  
뜸나는 날 죽장(竹杖) 짚고 화성 찾아가시나니  
선생께서 선적을 좋아한다 말을 마오  
벽운의 멋진 시구 절로 흥이 나서라오

매화나무 가지 끝에 걸린 하얀 달[梅梢皓月]  
납일(臘日)도 되기 전에 꽃망을 터뜨린 강매여  
분애 넘치게 천공이 또 달꽃을 빌려 주었고녀  
가슴속에 호기를 듬뿍 안겨 주나니  
일생 동안 샅된 생각 저절로 없어지리

대나무 숲의 맑은 바람[竹林淸風]  
호서(湖西) 땅엔 죽림 있는 인가도 드물 텐데  
어디서 옮겨 와서 무성한 그늘 이루었나  
어여빠라 대숲이여 어찌 더위만 식혀 주리  
세모의 풍상 고절(孤節) 그 마음 함께 지니리라

한 구역 무릉도원[一區桃源]  
도처에 핀 복사꽃 어디가 동쪽이며 서쪽이고  
궁벽진 곳 나무 아래 길도 나지 않았어라  
어부 붙잡고서 도원(桃源) 소식 묻지 마오  
속인(俗人)이 들어가려 하면 길 잃고 헤매리라

쌍둥이 연못 위의 연꽃[兩池荷花]  
푸른 일산(日傘) 붉은 화장 요염(妖艷)을 떠난 조출한 모습  
쌍둥이 연못 맑은 물에 날리는 향기 나긋나긋  
염계의 지택 속에 이 정경이 없었다면  
광풍 제월도 문득 적료했으리라

학당의 경서 강론[黉舍談經]  
강당에 조용히 모여 앉은 석진들  
단정한 유생의 모습 학규 또한 새로워라  
갓가지 주장 온갖 토론 벌여질 적에  
쟁그림 비파 놓는 사람 있을 줄을 내 알겠네

숲 속 정자에서의 농사일 구경[林亭觀稼]  
때 맞춰 행해지는 갓가지 농사일들  
임정에 치장하고 새참 먹는 농부들 보네  
앞으로 장자(長沮) 걸닉(桀溺) 비웃음 받진 않겠지만  
선생은 원래 번지를 배운 분이 아니랴오  
장유(張維)

앞 시내에서 낚시질[前溪釣魚]

아무 말없이 낚시줄을 드리우고 낚시터에 앉아 있으니

산골짜기 시냇물 너무 맑고 알아 잡히는 고기 드무네

이 사이 그윽한 흥치 아는 이 아무도 없어도

흥에 취해 홀로와서 살펴보고 홀로 다시 돌아가네

뒤쪽 계곡에서 밭씻기[後澗濯足]

그윽한 물줄기 영롱하게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고

시냇가엔 푸른 돌이 평상처럼 놓여있네

종래 본디 발은 먼지와 때가 없지만

맑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응당 무방하네

계룡산의 은자를 방문함[鷓鴣訪隱]

산 속 늙은이가 산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가니

가시나무 울타리와 초가집이 어지러이 떠도는 구름 사이에 있네

한 줄기 바윗길로 먼길 찾아 방문하니

하루 해가 다가도록 한가함에 빠져 문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네

대둔산의 승려를 찾아감[大菴尋僧]

아득히 먼 구름 끝에서 경쇠 소리가 나고

은자가 사는 깊은 곳에 이르니 길이 돌고돌아 험한 듯하네

산승은 부처님께 예불을 마치고

손님을 보고는 문을 열고 미소로 맞이하네

매화나무 가지 끝에 걸린 밝은 달[梅梢明月]

매화가 장차 필 때 달이 한껏 등그니

밝은 빛과 쌀쌀한 맨시 모두 알맞구나

말없이 은근히 보고 즐길 때는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법

다만 혼자 새벽녘에 홀로 서 있을 때라네

대나무 숲의 맑은 바람[竹塢清風]  
섬돌주위에 수축 그림자 푸르고 푸르고  
대나무 겹질 벗은 죽순은 백척 길이가 되네  
한 차례 미풍이 저녁나절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소리 달을 울리는 것이 깊은 가을 입을 알리는 것과 같네

연꽃 핀 연못의 소나기[蓮池驟雨]  
바람과 빗발 삼대처럼 휘날리고  
연못이 뒤집혀 만그루의 연이 놀려있네  
연잎의 구슬들이 모두 부서져 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  
낮에 대자리에 앉아 땀뺀 이 즐비하구나

버드나무 드리운 물가의 밥짓는 연기[柳汀炊煙]  
외딴 마을에 저녁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고 뒤섞여  
저녁 비스듬한 햇살이 버드나무 곁에 머무네  
해질녘 불던 바람 점점 가라앉으니  
앞산의 어둑어둑한 색 저절로 어슴푸레하구나

학당의 경서강론[柳汀炊煙]  
한가로이 사는 즐거움이 영재를 가르치는데 있으니  
언덕을 사이에 두고 숲 사이 가르칠 공간을 열었네  
달과 개 짓는 소리 드물어 마을가게 고요한데  
책 읽는 소리만 늦바람 따라 실려오네

숲속 정자에서 활쓰기[林亭觀德]  
수물 언덕에 자리 펴니 한낮에 그는 맑고 바람은 가라앉아  
과녁이 평안하니 활쓰기 알리는 북이 울리네  
술을 가득 부은 벌칙의 술잔이 돌아 모두 흥겨이 취하니  
군자는 본래 싸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네

양경우(梁慶遇)

※ 『溇縣書院誌』; 張維, 『谿谷集』 卷33, 七言絶句, 「沙溪先生黃性堂十詠」에 수록.

※ 번역: 위창복